



油價調整의 背景과 政府의 立場

朴 鳳 煥

〈動力資源部長官〉

에너지價格調整의 背景

정부는 그 동안 에너지價格의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국민생활에 고통을 잠시나마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의 生産費用을 비현실적으로 억제 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補助政策으로 에너지價格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姑息의인 彌縫策은 순간순간의 고통과 문제를 모면할 수 있지만, 어느 時點에 가서는 누적된 引上要因을 한꺼번에 현실화 하지 않을 수 없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특히 80년대에는 우리 經濟가 또 한번의 跳躍을 이룩하여 복지국가로서의 튼튼한 바탕을 마련해야 하므로, 에너지 政策도 일시적인 方便에 매달리지 말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石油, 電氣, 石炭등 에너지全般에 걸쳐 비현실적인 價格要因은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하여 에너지 문제를 일정한 원칙하에 명료하게 제도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화 조치는 이 時點에서 우리들 모두가 아픔을 勘耐해야 하는 人氣없는 정책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만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자 한다.

引上內容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번에 에너지 價格을 조정할 결과를 보면, 4월 19일 0시를 기해石

油類제품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0당 2백14원 29전에서 2백 44원 2전으로 29원 73전을 인상하고, 공장도가격으로는 배럴당 2만 6천9백 48원에서 3만 9백90원으로 4천42원을 인상하였으며, 石炭가격은 톤당 2만 1천 5백20원에서 2만 5천 8백원으로 4천 2백80원을 인상하고, 연탄은 個當 1백15원에서 1백38원으로 23원을 인상했다.

또한 電氣料金は 4월 21일부터 KWH당 평균 판매단가 58원 88전에서 64원77전으로 5원 89전을 인상했다.

이번의 油價調整은 기본적으로 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기능을 살려 나가고, 정부의 干與範圍을 가능한 한 줄여 나간다는 방침 아래 제도를 개선하고, 가격을 조정했다.

즉 지금까지는 油價조정시의 基準原油價는 정유회사들이 도입한 平均複合單價를 기준으로 하고, 低價로 도입한 精油社로부터 差額을 징수하여 高價로 도입한 競爭社에 차액을 補填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低價로 원유를 도입한 회사는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어 低價도입의욕을 沮害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低價로 도입한 정유회사의 원유가를 가격조정시의 基準價格으로 하고, 低價도입에 따른 差額徵收制는 폐지함으로써 基金 운영상의 마찰과 번잡성을 제거했다.

지금까지는 油價조정에서 精製費를 凍結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精油會社의 缺損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결손은 기금에서 補填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精油社의 損益을 분석해서 判定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判定한 손익에 대해 精油社는 항상 불만을 가지는 것이 常例로 되어왔다. 또한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基金에서 결손을 補填해 주는 데 대해 잡음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事例도 없지 않았다.

앞으로는 精製費를 현실화하는 대신 安定基金에서 결손을 補填하는 제도는 지양함으로써 油價管理制度를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또한 앞으로는 油價連動制를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引上要因이 발생하면, 제때에 조금씩 油價를 현실화함으로써 油價인상요인의 누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줌과 동시에 국제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무리없이 적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원칙 아래에서 이번에 油價를 인상한 구체적인 인상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해 12월15일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렸던 OPEC (石油輸出國機構)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原油價가 종전의 배럴당 30달러에서 80년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32달러로 인상되었고, 쿠웨이트産 油價도 81년 1월 1일자로 배럴당 4 달러씩 인상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油價인상요인을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는 변동환율제 실시 이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지난 해 油價조정 당시 달러당 6백58원 30전이던 것이 지금은 6백77원 80전이 되어 이것 역시 油價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억제해 왔던 精製費를 현실화함에 따라 배럴당 정제비가 종전의 2천28원에서 3천4백90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精油社의 이윤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비현실성을 지양하고, 정부에서 獨寡占物品價格 算定時 인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 精油社의 이윤을 배럴당 2백53원씩 인정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石油製品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현재의 배럴당 2만6천9백48원에서 3만9백90원으로 4천42원을 인상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電氣料金は 이번 油價인상에 따른

부담증가액 1천1백28억원과 電源開發 부족자금 2천6백14억원을 감안하여 조정, KWH당 평균단가는 현재의 58원 88전에서 73원 36전이 되었다.

이번 요금조정에서는 電源開發의 借款先인 IBRD (世界銀行), ADB (아시아開發銀行)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投資報酬率 9%를 유지하는 것을 조정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電氣料金を 조정 하더라도 KWH 당 66원 53전으로 인상해야 하겠지만, 韓電의 경영합리화로 4백51억원을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요금은 현재 KWH 당 58원 88전에서 64원77전으로 5원89전만을 인상했다.

한편 石炭價格은 그 동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격을 장기간 凍結하고, 財政補助에 의해서 低炭價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生産原價도 補填하지 못하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낮은 석탄가격으로서는 國內賦存의 유일한 에너지資源인 石炭의 증산이 벽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지하 수백 미터에서 採炭에 종사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의 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에 놓일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油類가격과 石炭가격의 상대가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石炭으로의 需要代替가 급격히 일어나서 國內炭보다 배나 더 비싼 海外炭의 수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 귀중한 外貨의 부담이 늘어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財政補助를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石炭價格은 生産原價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석탄의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石炭과 油類의 균형있는 소비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一時에 石炭價를 전면적으로 현실화하는 경우에 家計에 주름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요인 가운데 탄광근로자들의 賃金引上分 등 일부 불가피한 요인만을 반영하고, 다른 요인은 景氣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하반기로 늦추게 함으로써 우선 석탄가격을 톤당 2만1천5백10원에서 2만5천8백원으로 4천2백80원만을 인상했다.

調整效果

이처럼 石油, 電氣, 石炭등 에너지가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물가에 약3.5%, 소비자물가에 약1.5%의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制度의 개선으로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에너지의 공급애로나 소비구조의 歪曲現象은 없어질 것이며, 에너지의 安全供給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가격정책을 둘러싸고 때로는 政府, 企業, 家計가 상호 불신감을 가지고 의혹을 갖는 일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제도적으로 不信의 素地가 제거되었으므로 정

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전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오늘날의 에너지難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80년대에 또 한번의 跳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협조와 이해로써 밖으로부터 불어 닥친 충격과 고통을 조금씩이나마 分担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이번 에너지管理制度의 개선으로 民間部門에 의한 자율조정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값싸고 質 좋은 에너지를 장기 안정적으로 도입하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期해 나갈 것이며, 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한 利潤은 에너지산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産業의 체질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메이저의 81年度 自由世界 石油需給展望

美國系 메이저(國際石油資本)는 최근 발표한 81년도 自由世界 石油수급전망에서 올해에는 하루 80만 배럴(1 배럴 = 1 백59ℓ)의 공급부족이 생길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것은 선진소비국의 석유수요가 景氣後退 등으로 감소하는 이상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減産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수급전망은 전제로서 美國의 경제 성장을(실질)을 年率 1.9%, 유럽 마이너스0.1%, 日本 4.2%로 잡고 있으며 이 밖에 각국이 모두 石炭등 代替에너지개발과 省에너지化를 추진함으로써 美國, 유럽의 올해 석유소비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반면 OPEC의 수요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하루 4 천 9 백70만배럴로 前年比70만배럴(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급은 멕시코, 北海등의 생산이 80년보다 늘어남으로써 OPEC생산량이 80년의 하루 2 천 6 백90만배럴에서 81년에는 2 천 4 백90만배럴로 2 백만배럴이 감소, 전체적으로는 하루 4 천 8 백90만배럴로 80년보다 1 백50만배럴이 감소하며, 그 결과 81년의 수급밸런스는 하루 80만배럴의 공급부족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自由世界の石油需給
(單位日量万배럴)

| 〔需 要〕 | 1980年 | 1981年 |
|-------------|-------|-------|
| 美 國 | 1,700 | 1,680 |
| 유 럽 | 1,390 | 1,330 |
| 日 本 | 500 | 490 |
| 其 他 | 1,450 | 1,470 |
| 合 計 | 5,040 | 4,970 |
| 〔供 給〕 | | |
| OPEC | | |
| 사우디아라비아 | 960 | - |
| 이란, 이라크 | 410 | - |
| 其 他 | 1,320 | - |
| 計 | 2,690 | 2,490 |
| 非OPEC | | |
| 美 國 | 860 | 830 |
| 멕시코 | 190 | 250 |
| 北 海 | 210 | 240 |
| 其 他 | 570 | 590 |
| NGL, 其他 | 390 | 380 |
| 共産圈으로부터의純輸入 | 130 | 110 |
| 合 計 | 5,040 | 4,890 |

註① 1980年은實績, 81年은展望

② 共産圈은제외

③ NGL은 天然가스液